



효성,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억 후원

효성이 올해에도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효성은 16일 충남 육군본부에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에 1억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왼쪽)과 고태남 육군 인사사령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효성



LS일렉트릭,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 창단

LS일렉트릭이 예술을 활용해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 인식개선을 돕는다. LS일렉트릭은 17일 경기도 안양 LS타워에서 장애인 합창단 '그린 보이스'를 창단했다고 밝혔다. 합창단은 중증 발달장애 음악인 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LS일렉트릭



DL이앤씨, '희망의 집고치기 행복나눔' 활동

DL이앤씨는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저소득 가정을 찾아 '희망의 집고치기 행복나눔' 활동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희망의 집고치기 행복나눔 활동은 DL이앤씨가 건설업의 전문성을 활용해 소외 계층의 주거 시설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올해 봉사활동에는 DL이앤씨와 DL건설 임직원 총 30여명이 참여했다. /DL이앤씨



한국거래소, 베트남 '암소은행 사업' 후원

한국거래소는 지구촌나눔운동과 함께 17일 베트남 광저성 조링현 여성연맹 강당에서 '2023년 KRX 베트남 암소은행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우경 KRX국민행복재단 사무국장장과 조현주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총장, 짠 티 롱(Tran Thi Long) 베트남 광저성 여성연맹 주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헌혈 캠페인 전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부는 지난 16일 여의도에서 대한적십자사(서울중앙혈액원)와 공동으로 '따뜻한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직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료현장의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헌혈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SK하이닉스, '행복나눔기금' 기부액 300억 돌파

300억 기탁 감사패 전달 받아 월 정기 기부액만 9000만원

SK하이닉스가 10년간 300억원 행복을 나눴다.

SK하이닉스는 16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무실에서 행복나눔기금 300억원 기탁 감사패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행복나눔기금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로 조성한 후원금이다. 2011년 9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97억원, 지난달 300억원을 돌파했다. 월 정기 기부액만 9000만원, 수시 기부도 늘어나는 추세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천과 청주 지역 취약 계층 지원과 ICT 사회안전망 구축 등 6가지



SK하이닉스 김동섭 대외협력 사장(가운데 왼쪽)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가운데 오른쪽) 등 관계자들이 감사패 수여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업에 쓰인다. 행복 GPS와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 '하인슈타인', '행복나눔 꿈의 오케스트라'가 대표적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병준 회장은 "우직함 소가 천 리를 가듯 SK하이닉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나눔 실천으로 13년 만에 300억 원을 달성해 매우 뜻깊다"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를 행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SK하이닉스의 철학과, 성금보다 더 값진 꾸준한 행보에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감사패를 대표로 수령한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은 "회사는 행복나눔기금 외에도 엔지니어들의 다양한 재능 기부를 통해 어린 인재들이 반도체에 호기심을 가지며 성장하

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업장이 있는 이천 청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SK하이닉스는 그 밖에도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푸르메재단과 함께하는 장애인 사업장 '푸르메소셜팜' 봉사를 비롯해 도서관 부족 지역에 책을 대여하고 배송해주는 '하이브러리'도 시작했다. 오는 26일에는 이천아트홀에서 콘서트 '히어로'를 열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에 진행해온 문화 나눔 행사 '행복나눔 한마당'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부서별로도 다양한 봉사를 다시 시작했고, 청주사업장에서는 봉사동아리 '다솜바리'가 활동 중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 '엠브레인' 아동 심리상담 활용

〈차량용 헬스케어 기술〉

6개 아동보호기관 엠브레인 전달 뇌파 통해 심리상태 실시간 측정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뇌파 기반 차량용 헬스케어 기술 '엠브레인'을 아동 심리 상담에 활용된다.

현대모비스는 뇌파를 활용한 운전자 부주의 모니터링 시스템인 엠브레인의 디자인과 착용감을 개선해 인천, 경기, 강원 등 전국 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새롭게 선보인 엠브레인은 별, 나뭇잎 등 자연물을 형상화해 아이들이 친근감을 느끼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



한 어린이가 신규 디자인 엠브레인을 착용하고 상담사와 함께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인한 것이 특징이다. 엠브레인의 새 디자인은 디자인 창작물을 통해 아트 상품을 선보이는 사회적 가치 추구 기업인 키무스튜디오와 협업해 개발했다.

현대모비스는 아동 상담시 엠브레인을 활용하면 뇌파를 통해 드러

나는 아이들의 스트레스, 불안 등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상담사와 아이가 효과적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애초 엠브레인은 뇌파 신호 분석을 통해 버스, 물류 운송 등 상용차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 부주의 상황에 경고 신호를 줘 사고를 저감하는 기술로 개발됐다.

현대모비스가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도 공공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엠브레인을 착용한 운전자는 졸음 운전 등 부주의율이 최대 30% 가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 ysw@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멘토링 아이디어 공모전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하 '희망스튜디오')는 아동청소년 창의학습·창작활동 '멘토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자들은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간 온·오프라인 교류가 가능한 아이디어 콘텐츠를 제출하면 된다. /최빛나 기자 vitna@

더클래스 효성 사고 수리지원 프로모션

더클래스 효성은 6월 30일까지 '사고 수리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더클래스 효성은 서비스센터를 통해 사고 수리를 받은 차주에 금액 대별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 관리용품 마스터 패키지' 등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교환일로부터 2년간 일반수리 부품에 대한 품질 보증도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 juk@

인사

◆법무부 (대검검거급 전보) ◇대검찰청 산부패부장 신봉수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재익

부음

▲강해동씨 별세, 강영모(대신자산신탁 재무자금부장)·근영(군산초 교사)씨 부친상 = 17일, 동군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9일 오전 9시. 063-441-4444

▲이전례씨 별세, 김경철·김경만(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경록·김미화씨 모친상, 이상권씨 장모상 = 17일, 광주 서구 풍서로237 VIP장례식장 특101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30분. 062-521-4444

르노코리아, 협력업체 컨퍼런스 개최

친환경 신차 등 미래전략 공유

르노코리아자동차(이하 르노코리아)가 미래 친환경 신차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협력업체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르노코리아는 16일 용인시 르노 테크놀로지코리아에 200여의 협력사 관계자를 초청해 '2023 협력업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회사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는 한편,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컨퍼런스는 부품협력사와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주요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는 회사의 친환경 미래 신차 개발 계획과 자동차 테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위

하림, '용가리 AR 다이노 뮤지엄' 오픈

티라노사우루스 등 16종 공룡 전시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에서 증강현실(AR)을 활용한 특별전 '용가리 AR 다이노 뮤지엄'을 오픈했다.

'용가리 AR 다이노 뮤지엄'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와 하늘을 나는 익룡까지 총 16종의 공룡 조형물을 만나고 공룡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실감나는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이다.

하림은 공룡 캐릭터 '용가리'를 사랑하는 소비자들이 공룡을 주제



'용가리 AR 다이노 뮤지엄' 특별전 /하림

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